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산 화기삼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중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합작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화기제약(美國花旗制藥: America Citi Pharmacy)으로 1832년 뉴저지에서 설립됐고 1997년에 중국 상하이에 자회사인 上海三港 医藥生物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하여 화기삼의 홍보와 판매를 취급하고 있다. 乃本集團於加拿大之 聯營公司(Chai-Na-Ta Corp: CNT)는 세계 최대의 화기삼 공급업체로 전 세계 화기삼 생산량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화기삼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캐나다합작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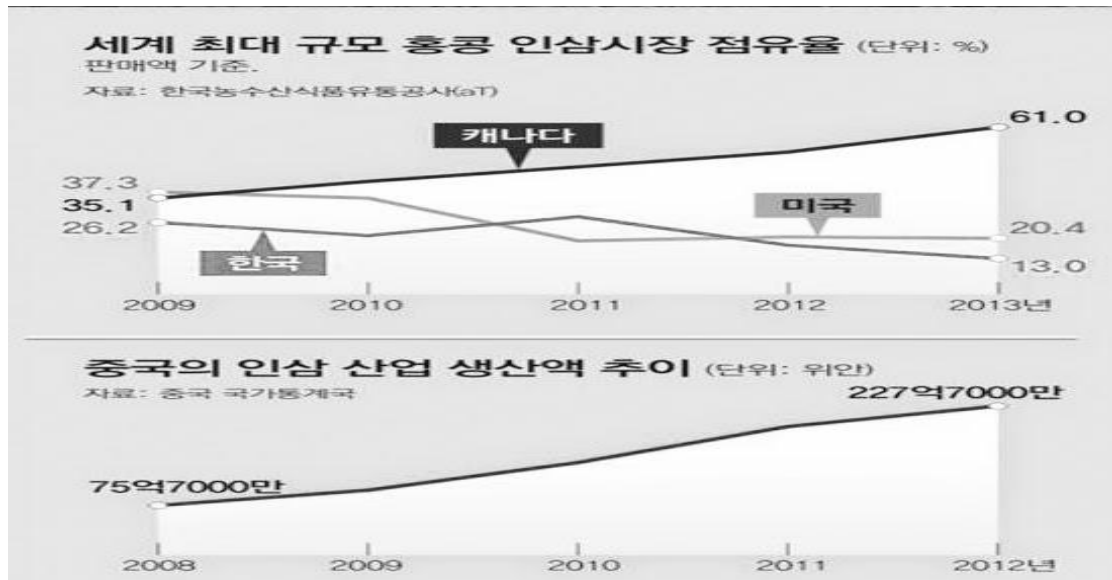


그림 19. 홍콩 인삼시장 점유율 및 중국 인삼 생산액 추이

자료: abc@donga.com

그림 19는 세계 최대의 인삼시장인 홍콩의 인삼판매 점유율의 5년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61.0, 미국 20.4, 한국이 13.0%로 61.0%로 약진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중국에서 인삼 및 인삼가공제품은 약재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SFDA(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삼 혹은 인삼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SFDA의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보건식품에 대해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품목당 소요되는 비용은 20-30만 위안(3,600-5,400만원)정도이고 이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기간도 2-3년이나 걸리고 있다. 뿌리삼류는 수입약재로 분류되어 약품관리법(2001)에 적용을 받으며 인삼가공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안전법(2009)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재배, 가공, 유통분야에서 따라 잡고 뛰어 넘으려 하고 있다. 한국산 인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며 한국산 위조품의 성행으로 한국산의 성가(聲價)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산 인삼과 인삼제품의 인지도는 강세이지만 중국이 생산한 서양삼(화기삼)의 품질도 높아지고 수입되고 있는 서양삼의 품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